

성보박물관 속속 문연다

국비 등을 지원받아 2년여 전부터 추진되고 있는 성보 박물관 8곳 대부분이 건축을 마무리 하고 잇따라 개관식을 봉행한다. 대흥사가 17일 성보박물관을 개관하는 것을 시작으로 28일에는 금산사 성보박물관이 문을 연다. 월정사 수덕사 통도사는 내년 봄, 해인사 동화사는 내년 말쯤 개관식을 가질 예정이다.

17일 개관하는 해남 대흥사(주지 보선) 성보박물관은 서산대사와 초의선사의 유물을 중심으로 서산관, 초의관, 민족문화기획전시관, 말사문화재전시관 등으로 전시 공간을 구성했다. 호국불교의 상징 서산대사와 차문화를 부흥시킨 초의선사를 조명해내는 전시관으로서의 특색을 갖춘 점이 특징.

금산사(주지 도영) 성보박물관은 총 1백20평규모의 2층 건물로, 미륵성지로서의 면모를 갖춰 놓는다. 전시관 중앙에는 대형 미륵불이 모셔져 있고 4백여점의 소장 성보 외에도 사찰 풍습 등을 소개하는 코너도 마련하고 있다.

월정사(주지 현해)는 206평 규모로 2층 건물로 현재 80%의 공정을 마친 상태로 내년 봄 개관을 위해 막바지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황하루 지하에 2백40평 규모로 마련되는 수덕사(주지 법정) 박물관은 역사관, 일반불교 미술관, 중앙홀 전시대, 고승유물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승유물관에서는 경허 민공 벽초 해암 일엽 스님 등 수덕사를 거쳐간 근세 고승들의 진귀한 유물을 만나볼

17일 대흥사-28일 금산사 개관 월정·수덕·통도사는 내년 봄 "기획전 등 빈틈없는 운영을"

수 있다. 수덕사는 내년 6월 경허스님 기일에 맞춰 개관할 계획.

통도사(주지 월파) 박물관은 4백여점의 불화를 2곳의 전시실에서 상설전시하고 패블을 완전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높이·조명 등을 고려한 특별전시실을 새로 꾸렸다. 불화전문박물관으로 태어날 통도사 성보박물관은 개관후 불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기획전시를 계획하고 있다.

해인사(주지 보광) 성보박물관은 5백여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2층 건물이 건립되고 있으며 현재 반 정도의 공정이 마쳐진 상태. 총 5백96평 규모의 동화사(주지 성덕) 박물관은 임진왜란 당시 사망대사가 영남승병을 총지휘하던 영남도총섭이었던 사찰의 이미지를 특색시켜 호국 불교사상을 고취시킬 수 있는 승병관련 유물 위주로 전시관이 마련된다.

이밖에 용주사(주지 정락)는 건물 단청작업을 준비하



◇17일 개관하는 해남 대흥사 성보박물관.

고 있고, 선운사(주지 혜산)는 건물은 이미 완공했으나 내장이 미비되어 개관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마곡사(주지 진허)는 재정이 확보되지 못해 현재 성보박물관 공사가 중단되고 있다.

잇따라 완공을 앞두고 있는 각 본사의 성보박물관이 불교문화재를 안전하게 보존·관리한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크지만 전시장에 성보를 그대로 나열만 한다면 의의가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 학예연구사를 채용해 기획전 등에서 사찰 고유의 특성을 잘 살려야 한다는 것.

한집디자인연구소 김희태소장은 "진귀한 성보뿐 아니라 사찰의 일상에서 쓰여지는 모든 것이 전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유물조사를 거쳐 다양한 기획전으로 사찰을 찾는 사람들에게 흥미를 주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강지연 기자(jygang@buddhopia.com)

불심시집 <149>

유연히 베풀길 있다

床上有楞嚴 경상 위의 능엄경은
(상상유능엄)
推我講信心 나의 강의 연구 의욕 돋우니
(추아강정심)
聽到無言處 망 없음의 듣는 곳에 이르면
(청도무언처)
悠然忘羣響 유연히 베풀길 잊겠소.
(유연망화향)

초의(興叟 1786~1866)선사의 시이다. 초의선사가 살았던 18세기 후반은 근대의 새로운 문명을 태동시키는 일종의 실험시기여서 유가의 선비들에게도 종교적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 보다 더 열린 사고로 세상을 대치하려는 시기였다. 불가의 스님들에게도 선비들과의 교류가 좀더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었다. 이러한 시대 조류 속에서 초의선사와 같은 분은 유가들과의 친교가 남달리 두터웠으니 그것은 선사가 다진 소양과 너그러움이었을 것이다.

이 시도 그러한 교류의 과정에서 당시의 대학자들과 주고 받은 여러 편의 연작시 중의 하나이다. 선사는 30대에 벌써 당시의 큰 선비들과 교류를 가졌으니 추사 김정희의 형제들과, 다산 정약용(丁若鏞)일가, 그 형제 부자들과의 친교는 선사의 인간적 면모의 변화뿐만 아니라, 선사의 방외적 학문의 틀까지도 변화를 주었을 듯하다.

그대들은 모두 현달한 벼슬 아들이지만 나는 경상에 있는 한권의 경전이 나의 마음을 다잡아 주는 길잡이이다. 그러면서도 끝내는 말 없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러야

하고, 거기에 이르면 그대들의 그 호화로운 것이나 인공이나 비너들이 나에게서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역시 세속과 탈속의 거리를 보여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한 것이다.

시의 수사에도 아무 꾸밈이 없이, 있는 사실의 광범함으로 상대들과의 변별점을 부드러이 표현하였다. 나에게 있는 한권의 능엄경과 그대들의 장시 물인 화려한 머리 수식은 세속 물로야 대칭도 될 수 없지만, 무언의 저 먼 곳에는 비교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연함이 그들과의 구분을 유지했던 것이다.

선사를 중심으로 모였던 시사가 두릉시사(杜陵詩社)였다. 여기에서의 사회활동의 한 면을 보이는 시에 "취수연 양털의 붓대요/ 지는 꽃 흐르는 물의 종로로/ 사회 끝나면 교통이 움직이고/ 붓 날리면 난새 봉황 날아오른다(鳳鳴羊毫管落花流水淺 筆龍龍動筆飛鸞鳳鳴)"라 함이 있다. 서로의 이의기당했던 작시활동을 여실히 보여 준다. 승 속의 거리를 무난히 유지하면서 자신의 신념을 지녔던 선사의 한 단면을 잘 보여 주는 시이다.

이종찬 <동국대 명예교수>

생사 초월한 詩語들

이형기시집 '절벽'
투병 5년동안 쓴 시모음



시는 허공이란 눈발에 구름으로 씨 뿌리고 바람을 소홀로 수확하는 농업이다. 거기에 수확의 많고 적음에 대한 어떤 기대나 또 수확을 저장할 곳도 필요하지 않다. 그런 것이 필요없다는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수확은 풍성해진다. 시인 이형기씨(65)의 시론(詩論)이다.

17세때인 1950년 <문예>지로 등단한 이씨는 문단에서도 타고난 시인으로 불린다. '가야할 때가 언제인가/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꽃이 지는 것, 스러진 청춘을 아름답게 노래한 '낙화'로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이씨. 뇌졸중으로 쓰러져 투병생활 5년째인 시인은 생을 초월한 삶을 꿈꾸고 있다.

투병 중에 쓴 시 42편과 시를 위한 아포리슴 '불꽃 속의 싸락눈'이 실린 <절벽>(문학세계사)에는 죽음에 대한 깊이있는 성찰과 원숙함이 감돈다.

이 시집에는 더욱 빛나는 그의 시혼(詩魂)이 느껴진다. 마비된 수족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한줄한줄 쓴 시에서 불멸을 꿈꾼다. '내 죽겨들랑 무덤을 짓지 말라/ 하물며 돌에 문자를 새긴 묘비일까/ 그날 불에 태운 뱃가루 두어 줘/ 강가에 뿌리면 그만이다' ('새 발자국 고수레' 中) 삶과 죽음의 경계는 이미 이형기 시인에겐 무의미하다. 꽃은 지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그는 말한다. 초월의지, 그의 맑은 영혼은 바로 여기에서 승한다.

신문기자로 대학교수로 한평생을 지내면서 시에 대한 열정은 언제나 그의 원고지를 달궜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변한 치료조차 못받아 안타까운 날들을 보내고 있다. 시집으로 <적막강산> <그해 겨울의 눈> 등과 평론집 <시와 언어> <현대시 창작교실> 등 20여권의 저서가 있으며, 대한민국의학상과 한국문학작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값 5천원.

한명우 기자(mwhan@buddhopia.com)



◇15일 공연에 앞서 3일 시연을 가진 한국창작음악연구회의 '차와 우리음악의 다리놀이-茶樂'.

차와 음악이 만나는 가을

창작음악연구회 '茶樂' 공연...15·16일 국립국악원

정갈한 차잔에 따르는 한잔의 차. 향긋한 내용과 함께 손으로는 온기를 느끼며 마시는 차에 격조높은 음악까지 어울린다면... 한국창작음악연구회(회장 김정수 추계예술대학교수)는 '차와 우리음악의 다리놀이-茶樂' 공연을 15·16일(일요일 오후3시, 7시 월요일 오후7시) 2일간 서울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갖는다.

차를 주제로 새롭게 작곡된 다악은 이성천교수(서울대 음대학장)의 '다도예찬', 박일훈씨(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장)의 '초일향', 이 건용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의 '차음악-일·물·빛', 황병기교수(이화여대 국악과)의 '차한이제', 백병동교수(서울대 작곡과)의 '녹향송', 김희조씨(한국음악협회 원로회원)의 '다심, 다악, 다산상매' 등 6곡. 국악계의 정갈한 대가들이 만든 이번 곡들은 차를 주제로 한 만큼 차 마시는 마음을 부드럽게 열어주면서 차와 차향에서 유발되는 상념의 세계를 때로는 고요하게 때로는 활기차게 다양한 곡조로 전개하는 것이 특징. 이번 공연에서는 백순실씨가 실치미술로 차가 있는 풍경을 연출하는 가운데 다선녀(茶仙女)가 향로에 향을 사르면서 차음악이 연주되고, 각 음악이 연주될 때마다 한국다도협회, 초일향대회, 한국차문화협회 등 12개 차회 차인들이 행사시연을 한다.

한국창작음악연구회는 이번 공연에 맞춰 '茶樂' CD와 테이프도 출반한다. (02)272-2152 이경숙 기자(gsllee@buddhopia.com)

문화소식



◇강대철작 '마애물'이 있는 산.

12일부터 강대철조각전

명상센터 '한마음 문화연구소'를 운영하며 구도자적인 자세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조각가 강대철씨가 12일부터 22일 까지 강남 신세계 가나아트 전시장에서 조각개인전을 갖는다. '얼굴' 등 30여점이 선보이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사람얼굴, 동물형상과 산, 바위, 구름 등을 통해 자아성찰이라는 내면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02)514-1540

동국대 '발굴유물특별전'

동국대 경주캠퍼스 박물관(관장 황상주)은 박물관 전시실에서 경주캠퍼스의 개교 20주년을 기념하는 '발굴유물특별전'을 12월 30일까지 연다. 경주 석장사터 출토 영기법승명탑상문전을 비롯 경주 천룡사터 석조감실발굴 등 12개 지역 유적에서 발굴조사한 불상, 와당, 토기, 절기, 유리옥 등 다양한 유물 7백 34점이 전시되고 있다. (0561)770-2462

경주문화유적 전도 '나왔다'

1763개 유적 정리



신라문화원(원장 진병길)은 경주지역 문화재가 집대성된 '경주문화유적 전도'를 제작했다. 촌락명과 등고선까지 표기된 이 전도는 가로 92cm 세로 62cm 크기로 경주지역의 국보 29점을 비롯, 보물 75점 등 국가 지정, 비지정 문화재와 관광자원, 산, 건축물 등 알려지지 않은 향토사 자료까지 정확하게 표기한 것이 특징이다.

송재중씨가 10여년동안 문헌과 기존자료를 대비해 현장을 답사해 만든 이 경주문화유적 전도는 불상 탐 고인돌 등 총 1763개 유적이 정리되어 있다.

또 전도 뒷면에는 시가지 중심부, 경주남산, 보문관광단지, 불국사 지구 등 중요유적 관광지 확대지도, 국보 보물 등 국가 지정·지정 문화재 통계와 신라역대왕 연대표 등을 표기해 놓았다.

한편 신라문화원은 경주남산 문화유적 순수건도 제작했다. 구입처 (0561)774-1950

원로, 중진 대덕스님들에게 올립니다

- 교단 안팎이 불안에 싸여 있는 이때에 -

법체 청안하시고 불사 여의 하시든지 삼가 문안 드립니다. 금번 원장 선거에 소납 설조가 외람되어 출마 선언을 하여 걱정을 더해드리게 되지는 않았는지 염려됩니다. 부디 너그럽게 살피시고 이해하여 도와주시기 바라며 필을 들었습니다.

소납은 비록 천성은 불민하고 닳은 것은 많지 않으나 그동안의 수행생활 동안 정법을 믿으며 바른 길을 걷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복덕이 부족하여 뜻하고 행하는 바가 옳더라도 주위의 이해를 얻지 못하여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이루었다 하더라도 슬한 어려움을 겪으며 처음 의도하였던 바의 반에도 못미치는 예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러한에도 불구하고 교단의 중무행정 책임자가 되고자 나서는 것은 이제까지 소납을 지켜 봐 주신 여러 어른들과 주위 분들의 중단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의로운 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교단 안팎이 극심한 격변기에 처해있는 이 때에 교단을 안정시키고 발전시킬 사명으로 선택하실 기회를 드림이 그동안 중단 개혁불사등 교단의 여러

일에 봉사해온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할 도리라고 감히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소납은 이번 총무원장 선거에 임하면서 중단의 여러 원로와 대덕스님들의 애중심과 삼보로서의 품위를 받고 결코 표를 사려고 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깨끗하고 모범적인 선거운동을 펼침으로써 설사 뜻이 이루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교단 내에서 관행처럼 받아 들여져 온 매관매직등 투표의 관행을 반드시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소납이 중무행정의 심부름꾼에 당선 되었을 경우 결코 속된 보복이나 감정발산으로 교단의 안정 기조를 깨뜨리는 중무처리는 삼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사를 지성적 판단에 근거한 불편 부담한 원칙으로 처리함으로써 교단을 화합으로 정립하고 우리 교단이 만중생들의 진정한 귀의처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중도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소납 설조를 중단의 행정 책임자로 선택하시어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의 도약을 위한 교단의 초석을 놓을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기를 경건한 마음으로 간청 하나이다.

불기 2542년 10월 27일

제29대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 설조 화남